



최분이 원장(보현행원노인요양원)  
“요양원은 평생 수행처  
어르신 만족해야 모두 행복”  
16·17면

#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7월 2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60호 2015년 9월 3일 목요일

## 교과서 편찬·집필 자료 제공 바른 불교 교육위해 ‘쟁걸음’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차 회의… 자체 교과서 등 추진

오는 9월 20일 교육부의 교과서 개정안 확정 고시를 앞두고 교과서 집필자들을 위한 불교관련 참고자료 제공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 불교 자체 교과서 집필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목소리는 8월 27일 전법회관에서 열린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제기됐다.

그간 연구위는 지난 7월 30일 교육부 공청회에서 공개된 윤리 교과과정 개정안에 불교관련 내용이 대폭 추가되는 패치를 만들어냈다. (본지 1056호 1면 보도)

하지만,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불교관련 내용이 제대로 실리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는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과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수경 스님 등 스님들과 김정호 명지대 교수 등 교과서 집필 관련 전문가, 김형중 동대부여중 교장, 박영동 영석고 교장 등 교과서 집필 및 심의 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중단 공신력 활용해 자료 제공

회의에서 먼저 박영동 前 교법사 단장은 “역사·윤리교과서 내 청원 결과가 반영됐다고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된다”며 “결국 집필자들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명지대 교수는 “현행 역사 교과내용에는 불교 내용을 충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고려불교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바로잡는 등의 목표도 있다”며 “결국 제대로 교과서가 쓰이기 위해서는 집필자에

게 필요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와 ‘법무부’의 경우 각 출판사에 교과서 매뉴얼을 보내 부서 관련 내용을 직접 명시해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인원 진선여고 수석교사는 “집필 자료제공도 중요하지만, 교수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그동안 교과서 집필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필 시 유의점을 정확히 자료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집필자 마음 잡아야”

참고자료·매뉴얼 제공 예정

‘창설형 교과서’ 장기 과제

분야 소위 구성… 계획 수립

중단차원 예산 지원 이뤄져야

창설형 교과서에 주목해야

이날 회의에서는 불교계가 직접 교과서를 편찬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제시됐다. 김정호 명지대 교수는 “현행 교과내용에 없는 교과서도 ‘창설형 인증교과서’ 제도를 활용하면 교과서 편찬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창설형 인증교과서는 일선학교 요청으로 신규과목을 창설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장에서 ‘중소기업’, 전경련에서 ‘경제’ 교과서가 대표적이다. 교육부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편찬 교과서가 참고도서로 활용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를 창설형 인증교과서로 편찬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제도의 취지는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해 쓰는 것”이라며 “불교계 중립학교의 요청을 통해 중단 차원에서 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현 교과서 편찬위 고위관계자는 “출판사 등에서 교과서 편찬에 평균 2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며 최대 5000만 원 가량이 소요된다. 윤리와 역사 등 기성분야는 이미 출판사들이 체계를 잡고 있기에 종단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신생과목인 ‘고전과 윤리’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재 동대부여고 수석교사는 “교과서는 기본 뼈대일 뿐”이라며 “요즘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 자료를 활용한다. 중단 차원에서 불교 관련 사진, 연표 등 종합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중 전문가 세미나 개최

장시간의 회의 끝에 연구위는 윤리·역사·사회의 세 분야로 소위원회 나누고 집필자료 및 교과서 편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9월 중으로 관련 불교학자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기존 집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실제 집필에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불교의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는 불교 매뉴얼 내지는 참고도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편찬 예산을 중단에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화주를 분사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은 8월 27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선언’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행사에서 도법 스님, 박남수 교령 등이 함께 한반도기 아래 철조망을 끊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박아름 기자

## “8.25 南北 합의, 실천이 중요”

5대 종교인, 27일 남북평화통일선언 발표… 주요 중단도 환영 논평

8월 25일 남북고위급회담이 극적 타결된 가운데 한국 5대 종교인들이 모여 남북평화와 통일정책 안정화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이하 민족평화종교인모임)은 8월 27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

장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선언’을 발표했다. 민족평화종교인모임은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8.25공동보도문발표에 환영하며 “앞으로 남북이 상호 협력해 주체적 모인(이하 민족평화종교인모임)은 8월 27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에 △적대관계 해소 △정책적 일관성 유지 △민간교류 허용 및 확대 등을 제안했다. 불교계 주요종단과 관련 단체들도 잇달아 8.25 합의에 대한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

승)은 8월 25일 오후 논평문을 발표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8월 25일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협상의 타결은 남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진가종(통리원장 회장)도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신성민·박아름 기자

〈관련 기사 및 칼럼 3, 31면〉

## ‘과거사 정리’ 사업 전담 기구 구성

조계종, 재심 논란 조치로 ‘중단 화합 사부대중위’ 설립

6차 대중공사서 조직안 발표  
출제자가 25인 내외로 구성  
호계원장 9월 말까지 사퇴  
37개 사찰, 재정 공개 추진

의현 스님 재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과거사 정리 기구가 윤곽을 드러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8월 26일 태화산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진행한 제6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지난 대중공사의 후속 대책으로 ‘중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이하 사부대중위)’의 구성 결과를 발표했다.

사부대중위는 통합종단 출범 이후 발생한 과거사에 대한 총체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한 과거사 처리 방향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1994년 별빈자 처리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결방안, 중단 개혁에 대한 미래지향적 계승에 대해서도 의제로 다루며, 필요한 입법 및 행정조치 마련도 책임지게 된다.

사부대중위의 활동 기한은 1년이며, 종령에 의한 독립기구로서 25인 내외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추천된 위원은 도법, 지흥, 지현, 일강, 세사에서 지난 대중공사의 후속 대책으로 ‘중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이하 사부대중위)’의 구성 결과를 발표했다.

주 등이다.

또한 지난 5차 대중공사에서 결의된 권고된 호계원장과 재심호계위원의 사퇴도 이뤄졌다. 호계원장 자광 스님은 이날 대중공사 입재식에서 직접 나서 사퇴의 변을 밝혔다. 자광 스님은 “의현 스님의 재심 판결은 중헌 중법 안에서 이뤄진 적법한 판결”이라면서도 “호계원장으로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지만 중단 개혁에 대한 중도들의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여 사퇴의 뜻을 밝힌다. 다만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퇴 시한을 9월 말까지 정한 것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제3차 대중공사의 결의 사항인 사찰 재정 공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는 9월부터 재정 공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사찰은 교구본사, 직영사찰, 특별분담금사찰, 4등급(예산 29억) 이상 사찰이다. 37개 대상 사찰에게는 지난 7월 30일부터 공문을 시달해 종단의 방침을 전했다.

재정 공개 범위는 불사, 교구, 템플스테이, 적립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전반이다.

공개 방법은 사찰운영위원회에서 분기별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사보와 법보 및 인터넷, 임회 등 자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재정 공개 미이행 사찰은 중헌 중법에 의거해서 처벌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재정공개 미이행 사찰의 주지 스님은 책임이 불가하며, 종단의 각종 승인업무가 보류되고 특별 감사가 진행된다.

공주=신성민 기자

## “화두 타파한 날이 바로 해제”

전국 100여 선원, 8월 28일 하안거 해제

3달 기간의 하안거 정진이 마무리 됐다. 전국 사찰과 선원은 8월 28일 일제히 하안거 해제 법회를 개최했으며, 안거 기간 정진했던 수좌들은 만행을 나눴다.

전국선원수좌회가 발행한 <클미년 하안거 선사 방함록>에 따르면 하

안거 동안 총림 8곳, 비구선원 60곳, 비구니선원 34곳 등 전국 102개 선원에서 정진한 대중은 총림 316명, 비구 1,103명, 비구니 743명 등 총 21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하안거 해제 법회에서 “정진한 해제란 화두

를 타파하여 자기의 분성을 알게 될 때 천하를 횡행하는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마음을 담금질하여 대오견성의 각오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두를 타파하여 선지식 계 인가 받는 날이 해제라 다짐하고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혼신의 힘으로 정지에 정진을 거듭해야 한다”고 대중들에게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종정 및 총림 방장 법어 8면〉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마음의 뿌리, 자기생명의근본으로 곧장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語 -  
‘삶이 곧 불법’ 입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큰스님 법음록  
그냥 무조건 이야기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21 www.hyunbulshop.com

- 본문 중에서

